

승차자가 있었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했었다거나 알면서도 동참을 하지 않았다면 참으로 유감스런 일이었다. 왜냐하면, 금년도 시행된 낙농자조금사업으로 하여금 낙농가에게 엄청 많은 이익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1997년말 불어닥친 금융대란으로 원화가치가 배 가까이 떨어져 배합사료 값이 40% 이상이 급상승함으로서 정부가 1998년 1월 1일자로 원유가격을 평균 18.4%나 기습인상하였다. 그 후 환율이 하향안정되어가고 사료곡물의 수입이 원활해져 사료가격이 인하되자 1998년 5월초 정부의 우유수급안정대책회의에서 원유가격을 5.4% 인하하도록 방침을 정한바 있었다.

이에 대해 한국낙농우협회에서는 원유가격 인하대신 원유 kg 당 5원씩 3개월간 자조금을 조성

하여 우유소비홍보에 나서겠다고 하여 시작이 된 사업이었으니 숫자로 한번 풀이해보면 연간 원유 생산량 약 200만톤, 1998년 6월 1일부터 인하하였다고 치면 200만톤의 12분의 7인 117만톤, 5.4% 인하시 톤당 가격은 29,036원(원유 kg당 평균가격 537.7원×5.4%×1000kg)이며 1998년에만도 약 340억원, 1999년도 약 580억원의 혜택을 본 셈이고, 이중에서 약 20억원을 각출하자는 것이었는데 무임승차자가 있었다는 것은 국내 낙농산업의 장래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한번 깊이 반성해 보아야할 대목이 아닌가 싶다.

혹여 유가공업계는 왜 동참하지 않았나 하는 반문이 있을까하여 살펴본바 1998년 7월초에 우유가격을 평균 6.7% 인하하였고, 전례없이 우유성수기(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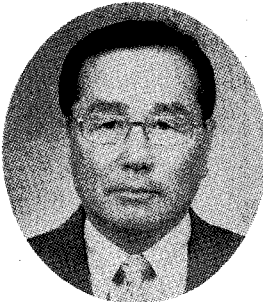
월)에 16,000톤의 분유재고를 부담해야 했으며 유가공제품의 완전개방으로 재고분유를 생산원가의 절반도 못되는 가격에 팔아야하는 뼈를 깎는 고통을 받은 바 있어 죽히 이해가 되리라고 믿어진다.

또한 자체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영여건하에서도 자조금 수급에 적극 앞장을 서주었고 홍보사업의 일환인 "범국민 사랑의 우유나누기"에도 기여이 동참한 점도 좋은 선례로 평가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작된 낙농자조금사업이 다가오는 새천년과 21세기 원년에는 한 농가도 빠지지 않고 전 낙농가가 참여하여 국내 낙농산업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의 한 축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필자연락처 : 02-584-3631〉

## 낙농자조금사업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가시적 효과를 거두었다



정 선 부

낙농자조금자문위원(낙농진흥회 전무)

낙농자조금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유는 완전식품으로 국민건강, 유아건강, 노후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음식이라는 인식을 많은 국민들에서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낙농자조금사업 원년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더 많은 자조금이 모금되고 이를 이용한 우유의 소비촉진 홍보가 더 많이 전개될 것을 바라는 바이다.

**우** 리나라 낙농산업은 비록 그 역사는 짧지만 낙농관련 기술수준이나 젖소의 사육규모에서나 농업총생산액중에서 낙농생산물 비중을 볼 때 우리나라 낙농산업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현안문제도 낙농가가 주축이 되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우리 축산업계에서는 축산물의 소비확대를 위해 중소가축을 중심으로 자조금제도 실시를 여러번 시도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는 거두지 못하게 사실이다.

낙농육우협회에서는 금년도에 낙농자조금제도를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우유소비 기반이 크게 확충된데 대하여 축산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낙농자조금 제도 시행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낙농자조금제도 시행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 1. 낙농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업이었다

지금까지 몇번 시도한 타축종의 자조금 모금은 관련축종에 종사하는 협회를 중심으로 몇몇 지도자 및 열성인사들이 앞장서서 자조금을 내면서 농가들의 참여를 유도해왔으나 이번의 낙농자

조금 사업은 낙농육우협회가 주축이 되어 낙농육우협회 지회, 낙농조합 등이 동참하여 낙농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낙농가들은 우유의 소비확대가 우리나라 낙농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인식의 바탕하에 원유 kg당 얼마씩의 자조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같은 낙농가들의 자발적인 자조금 모금참여는 이번에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믿으며 타축종에 까지 이와같은 운동이 확대되어 우리나라도 축산인 스스로가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촉진운동에 참여하는 선진국형 축산자조금사업이 뿌리내릴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본다.

### 2. 모든 낙농인이 빠짐없이 참여한 사업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용부담에는 인색하여 자기는 부담을 작게 하면서도 혜택은 많이 받기를 바라고 있다.

얼마전 중소가축 사육농가를 중심으로 자조금사업을 전개한 일이 있었는데 이때 일부 헌신적인 양축농가는 상당한 금액의 자조금을 내면서 같은 축종의 농가에 자조금을 낼 것을 설득하였는데 그 때 “모든 농가가 다 내는

가”를 묻기에 우선 대규모 농가부터 자조금을 내고 그 결과가 좋으면 중소규모 농가까지 확대하고자 하니 우선 참여할 것을 권유했으나 그 농가의 대답은 “자조금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비용은 부담하지 않고 소비촉진으로 인한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농가가 미워서 자기도 자조금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끝까지 불참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낙농자조금사업은 우유를 집유하고 판매하는 창구가 한정되어 있어 타축종보다 쉽게 모든 낙농가가 참여할 수 있었던 것도 낙농자조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 3. 자조금의 집행과정이 투명하였다.

필자가 낙농자조금사업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자조금의 모금에서부터 대행업체의 선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결과 지금까지 어떤 자조금사업시행과 비교해 보아도 객관성이 있고 투명성이 있게 진행되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광고대행업체 선정과정에서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낙농육우협회 집행부는 전연 관련하지 않고 자조금운영위원 및 자문위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광고대행업체별로 광고추진계획을 발표시키고 각 위원과의 질의응답과정을 거친후

평가기준에 의해 그 자리에서 평가위원이 독립적으로 채점을 하고 이 채점결과를 그 자리에서 집계하여 최고득점 업체를 광고 대행업체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효율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었다.

#### 4. 자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

낙농자조금의 집행을 위해서 사전에 추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모금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귀중한 자조금이 짜임새있게 집행되었다고 본다.

총자조금중 TV광고에 투입되는 부분, 신문광고에 투입되는 부분, "사랑의 우유나누기 운동"

에 투입되는 부분 등 여러분야에 걸쳐 투입하여야 할 최적비율을 분석하여 자금이 투입됨으로 인해 낙농자조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다.

이와같은 자조금 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은 자조금을 대신 낙농농가에 대한 일종의 보답인 동시에 자조금 집행부서에서는 자부심을 가지게 하고 더 나아가 타축종의 자조금사업 시행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5. 자조금사업 결과의 가시적 효과가 있었다.

이번 자조금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유는 완전식품으로 국민건강, 유아건강, 노후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음식이라는 인

식을 많은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지하철에 "사랑의 우유 나누기 운동" 포스터를 부착하여 지하철을 이용하는 중산층에게 우유의 우수성이 집중적으로 홍보되었고 또한 SBS 방송매체의 ARS를 통해 사랑의 우유 나누기 운동에 필요한 돈이 모아졌다는 것이 이번 자조금사업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아무쪼록 낙농육우협회에서는 낙농자조금사업 원년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더 많은 자조금이 모금되고 이를 이용한 우유의 소비촉진 홍보가 더 많이 전개될 것을 바라는 바이다. ☺

(필자연락처 : 02-573-7822)

## 낙농자조금사업! 우리 낙농인은 해냈다



박 응 규

낙농자조금운영위원(해태유업)

우리 해태 낙농가들은 3개월 반이런 기간의 원유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98년도 10월 7일 해태유업이 최종부도를 내면서 낙농가들은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 낙농가들은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어려워도 낙농자조금은 꼭 필요하다는데 인식하고 뜻을 모아, 전국에서 제일 먼저 모범적으로 낙농자조금을 거출하여 낙농자조금추진위원회에 보냈다.

**지** 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으로 다사다난 했던

1999년도였다. 우리나라가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 및 모든 모조

분유수입제한조치해제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을 남겨두고 있는